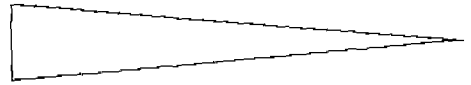




전기계단신



국내소식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고용의무 완화키로

정부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범위를 축소, 20kW미만의 폭발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2천kW미만의 전기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을 완화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은 75kW이상의 전기설비 및 20kW이상의 대중이 모이는 장소와 함께 폭발성·인화성이 있는 모든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전기기사)를 선임토록하고, 1천kW이상의 전기설비 소유자는 이와는 별도로 보조원(전기기능사)을 선임토록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 대폭 강화로 수급안정 도모

상공자원부는 금년도 전력수급사정이 지난해 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적정수준(15%)의 예비율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발전소 건설 공기단축 등 공급능력 확충과 수요증가를 10%이내 억제를 목표로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는 안양·분당 열병합발전소(35kW)의 공기를 2개월 앞당겨 오는 7월에 준공하고 보령·삼천포 등 4개소(226만kW)는 계획대로 6월 이전에 준공하는 등 8월 최대수요 발생이 전까지 총6개소 261만kW의 발전소를 추가로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 전력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고효율 절전기기의 생산·보급 촉진을 위한 기기비용 보조금지급, 에어컨, 세탁기, 전자식 안정기에

대한 효율등급제의 추가 시행 등을 통해 구조적인 절전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빙축열, 가스냉방기기 등 여름철 냉방용 전력수요 대체 설비의 보급확산을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에서 총 91억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 세제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4백만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건물이 전년보다 10%를 절전할 경우 절전 이익의 20% 상당액을 전기요금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전, 전력수급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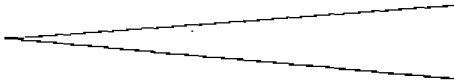
한전이 하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개별수용가의 수급조정방법, 조정시행의 적정성 등을 파악키 위한 수급조정 약정수용가들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수용가의 81.5%가 수급 조정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전은 여름철 전력수급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제한송전」이라는 여론부담을 덜고자 현재 한전과 수급조정 약정이 체결된 전수용가 645호(148만kW)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수용가의 81.5%인 526호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18.5%인 119호만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전체적으로 수급 약정 체결에 대한 수용가들의 호응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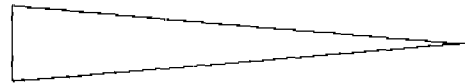
특히 응답 수용가중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약정을 희망하는 수용가가 242호(63만kW)나 됐다.

이에따라 한전은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약정을 희망하는 수용가 43만 2천kW와 비록 생산활동에 지장은 있으나 약정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수용가 중에서 주요산업이 아닌 일반용 및 농정조정이 가능한 수용가 중에서 선별해 약7만kW를 확보, 금년 목표조정량인 총50만kW만 약정체결키로 했다.

한편 전력수급난이 노정됐던 지난 '92년에 각각 112만 5천kW와 136만kW까지 수급조정 약정을 체결했던 한전이 금년들어 과거절반도 못미치는 50만kW 정도를 목표조정량으로 설정한 데는 올여름 수급안정이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용



전기계단신



가와 한전간에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수급조정이 「제한송전」이라는 지금까지의 의식을 불식시키면서 전력수급 사정이 어려울수록 생산활동에 지장은 없이 약간의 불편 감수만으로 전기를 절약할 경우 국가·수용가 및 한전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요관리제도」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전, 빙축열기 보급촉진

한전은 빙축열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해 「빙축열 설비 설명회」를 본사에서 실시했다.

빙축열 설계·시공 전문가와 주요 잠재고객, 사업소 담당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빙축열 냉방시스템의 보급배경과 지원정책을 비롯해 빙축열 냉방설비 설치사례 등의 자세한 설명과 발표가 이뤄졌다.

금성산전, 천안공장 준공

금성기전(대표이사: 김희수)은 4월 28일 전기전자 전용 천안공장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된 전용공장에서는 PLC, 로봇트, 발광다이오드 등 각종 FA기기류와 전동공구를 생산한다.

이 회사는 앞으로 2백억원을 추가 투입, 천안공장 규모를 3만평으로 늘리고 광반도체류와 공장자동화기기 분야에 집중 투자, 오는 2천년에 생산제품의 20%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

해외소식

웨스팅하우스, 변압기 장착기 개발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사는 최근 변압기를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장착기를 개발했다.

이 장착기의 시설설비는 400MVA~345kV에 이르기까지 조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스위치 기어와 파워 브레이크의 수리가 가능하며, 부가적으로 분석적 시험서비스로도 유용하다.

와이어레스 LAN시스템 개발

일본의 세키스이화학공업(주)는 세키스이(積水)와이어레스 LAN시스템을 개발했다.

반복방식에 의해 서비스구역에서의 무효대역을 대폭 경감했다.

그리고 와이어레스 핸드터미널의 응용소프트개발에 전용 베이직을 준비하여 두어 소프트웨어 대응력을 강화했다. 와이어레스 핸드터미널의 장시간 사용에도 감당하는 대용량 전지를 장비했다. 특히 코맨드 호출 능력이 없는 기기를 I/O모드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RS커넥터 IF201 개발

일본의 요코하마 인스톨먼트(주)의 관련회사인 요코하마 디지털 컴퓨터(주)는 퍼스컴 등의 단말간을 원거리 접속하는 'RS232 커넥터 IF201'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구내에서 모뎀으로 사용하여 왔던 플랫폼 케이블의 가격을 저감하였으며 본체는 종래품의 2분의 1가격으로 실현했다. 멀티포인트 접속으로 임의의 2국간에 동시통신이 가능하다. 2국(局)간은 최장 600m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응하는 전송 속도는 DC에서 19.2kbps(킬로비트 매초)까지 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LAN(Local Area Network) 등의 OA(Office Automation)에도 대응된다.

제 3세대 IGBT모듈 개발

일본의 후지렌키(주)는 스위칭 동작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종래시리즈에 비해 40% 절감한 신세대의 IGBT모듈 '제3세대 IGBT모듈 J시리즈'를 개발했다.

이 상품은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에의 미세가공기술의 적용에 의한 스위칭 스피드의 고속화와 저포화 전압을 실현하였으며 특히 고속 다이오드의 신구조를 채용함으로써 소프트 리커버리 특성을 최적화시켰다.

또한 과전류 제한 회로를 동일 패키지 내에 내장하였으므로 단락 내량 성능도 향상시켰다.